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인생의 문제

원고송네 알뜰

정보·문화·미술



김 휘 애

“

농군의 지혜처럼 겨울에 꽂이 피기를 재촉하는 것보다 내년 봄에 쓸 퇴비를 만들고 작년에 만든 퇴비를 논밭으로 실어 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겨울 준비가 아닌가 싶다.

”

농군의 지혜처럼 겨울에 꽂이 피기를 재촉하는 것보다 내년 봄에 쓸 퇴비를 만들고 작년에 만든 퇴비를 논밭으로 실어 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겨울 준비가 아닌가 싶다.

요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전되면서 대통령은 전문가와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양이지만 교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듯싶다. 섭진강변 농촌에서 학기말 연수를 받던 교수들에게 강사로 초청된 농군은 조급해 하지 말고 비단이 멀고 파도가 전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띄우라고 말한다. 기다릴 줄 아는 국민이 이해로운 국민이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되어 이를 기초상품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으로 번지고, 거미줄처럼 춤출히 연결된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경제를 위기로 전염시키고 있지만 글로벌 통제시스템이 아직 미숙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얹혀 그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방관할 수도 없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조치들만 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처방은 어디까지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금융상품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보유 재산이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금융재산의 비중이 높고 이를 운용하여 얻는 소득도 높을 뿐 아니라 재산 증식과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은 산업에 투자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자, 소비자, 근로자들에게 분배되어 인류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몇 년 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대단하여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두 가지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되었고 망국병이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부동산 투기에 몰려다니던 돈이

금융투자로 방향을 잡아가던 시기여서 현 금융위기는 필자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더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저소비-저생산-저고용-저소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장의 고리가 끊겨 기술 변화가 빠르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국제경쟁체계에서 선진국의 대열로부터 아주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듦는다.

실제 중소기업은 도산의 불안에 시달리고, 대기업은 동면할 각오까지 하는지 점차 투자를 줄여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이 각각 다르다. 부자는 흉년에 곳간을 열어야 하고, 소비자는 국내상품을 많이 사주고 달러를 아껴야 한다. 기업은 원가에 집착하지 말고 세 일하여 소비자 지갑을 열어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소비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물길이다. 연예가 산란하기 위해 오르는 물길을 남겨두지 않으면 다음해에 돌아올 양에는 없다. 소작농이 굶주려 별들면 다음해에 농사 소득이 줄어드니 곳간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지만 소비자도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잘 좋고 싫은 상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부의 원천이며 소비자에게 일터를 주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외국 돈 빌려다 이자들이 하

고 빌려온 엔화 값이 오르고 지금기한에 시달리니 국가에 손을 벌린다고 미워받는다. 수수료가 적은 지수연동 상품이나 건설한 외국투자회사의

펀드는 모른 체 하고 수수료가 많은 국내투자회사 펀드를 장려하지만 않았어도 주가지수가 떨어진 민족 달러 값이 올라주어 별 손해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일부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원망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미 생활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들도 전문지식이 양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일인 그들의 위기 모른 체 할 수도 없다. 지난 정권은 한국을 동북아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고급 금융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허브가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미 세계는 금융시대라고 할 만큼 금융의 기능이 확대되어 있다. 우리도 국제금융경쟁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두 번씩 겪었으니 이제는 이해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선진 고급금융인력으로 보강하고 전문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도 사이클이 있다. 농군의 지혜처럼 겨울에 꽂이 피기를 재촉하는 것보다 내년 봄에 쓸 퇴비를 만들고 작년에 만든 퇴비를 논밭으로 실어 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의 섭리는 경제에도 적용된다.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겨울 준비가 아닌가 싶다. 지난 환란이 기업에게 부채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는 한국에게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목포대 경영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재탕 짜깁기 부풀리기 '녹색 뉴딜' 효과는…

정부가 지난 6일 야심 차게 내놓은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발표했던 각종 대책을 한데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재탕 이상 우려 먹는 것이다. 기존의 대책을 짜깁기하거나 부풀려 '녹색 뉴딜'로 포장한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 뉴딜'을 통해 불과구를 찾으려는 정부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중복 대책이 자주 발표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성과 기대 효과가 의문이 되는 정책에 어느 경제주체가 투자할 것인가. 특히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녹색'으로 포장하려 드는 전시성 행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살 수 없다.

정부는 철저한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으로 녹색 뉴딜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겹치기 출연'으로 투자 규모를 부풀

## 朝大 정상화 표류 교과부·사분위 책임 크다

1년여동안 혼미를 거듭해 온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가 해가 바뀌어도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해 1월 20년동안 유지됐던 임시 이사 체제를 정산하고 정시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법인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가 1년이 넘도록 표류하면서 사분위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부 역시 사분위의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조선대 정상화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분위 위원들이 진보·보수 성향으로 갈리면서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분위가 무려 1년동안 조선대 정상화 안건을 심의 했고, 수십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분위의 능장 심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학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분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분위가 오히려 사학 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과부의 어정쩡한 모습도 한심하다. 교과부는 한시적 임시사자 재과견이나 일부 위원 해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어제는 조선대 학내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 됐던 '1·8항쟁' 21주년이었다. 구재단의 전횡에 맞서 싸웠던 1988년 '1·8 항쟁'은 조선대 구성원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참여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법인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가 1년이 넘도록 표류하면서 사분위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부 역시 사분위의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조선대 정상화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분위 위원들이 진보·보수 성향으로 갈리면서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분위가 무려 1년동안 조선대 정상화 안건을 심의 했고, 수십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분위의 능장 심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학

## 無 等 鼓

'황금빛 에로티시즘의 대' 구스타브 클림트(1862~1918)의 작품들이 서예에 온다.

'유디트 1'과 '아담과 이브' 등 대표적 걸작들이 내달부터 석달간 예술의 전당 한기암 미술관에 전시된다.

주최측은 아시아 최초이자 21세기의 마지막 작품전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클림트의 작품을 가

장 많이 소장한 오스

트리아비엔나의 벨베

데레 미술관은 오스트

리아와 한국의 우호증

진 차원에서 한국전에

전례없이 많은 작품들

을 대여했다. 그런 만

로 우리는 모처럼

착수되는 영산강 생

태하천 사업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을 중심으로

기원한다.

<영산강포럼 대표>

의 초상'은 2006년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보유한 기록을 깨고 당시로 선 희화 거래 사상 최고가인 1억3천500만 달러에 팔렸다. 그의 유명세는 천문학적 수치의 복제품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 걸작'기는'는 포스터로 업서로, 장식품으로 심지어는 두통약 포장지에 까지 복제되어 있다. 클림트는 특히, 한 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동양적 황금빛 상상력이 친근하기 때문일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차치하고 꼭 한 번 감상해야 할 전시회라는 생각이다. 클림트에 열광하는 필자를 비롯, 수준 높은 전시에 끌어온 미술 애호가, 체험학습이 필요 한 이 지방의 학생들

은 개막일을 손꼽아 기다려 서울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쯤에서 오버랩 되는 장면하나.

그리 머지않은 그날. 옛 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이 초청한 클림트전을 지하철을 타고 가서보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김일환 어여매체부정 kih8@

## 철새 도래지 방역, 조류독감 예방하자

책 '서번트 리더십 2'라는 책에서 헌터는 변화를 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두의식과 비속련의 단계로 특정 기술이나 행동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는 의식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해 낼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어떤 기술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을 배우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어색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따라 그 행동이 자신의 것으로 속련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완숙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C. 헌터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체득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만한 변화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체득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습관으로 몸에 배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변화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일어난 변화를 변화의 전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2009년 새해, 나의 변화의 단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속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목표

와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

을 것입니다.<광주 서현교회 담임목사>

## 매춘의 비인간성 알리는 사회적 풍토 절실

우리는 은연중에 매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매춘이 단속이라도 할리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술자리의 안주로 삼아 '백번 단속해봐라. 그게 없어지니'라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춘이 사라진 적이 있느냐. 막을 걸 막아야지'고 말한다. 적어도 '매춘이 나쁜 건 사실인데 좀체 줄어들지 않으니 걱정이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 정도는 해야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매춘에 관해 그렇게 관대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

겠지만, 그 용어의 변천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예전과 달리 지금 쓰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라 용어는 성을 파는 사람들은 피해자일 뿐 범죄가 없고, 그들을 찾아온 고객들이 가해자며 그들이 범죄자라는 의미를 풍긴다. 이런 용어가 젊은이들의 사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나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자주 매춘의 비인간성과 범죄적 문제점 등을 알리고 가르치고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미진·목포시 서신동

## 光 州 日 报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禕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국제신문·배달면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0118)

정 치 부 2200-634 여론·문화체육 2200-679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536 (F A X 02-773-9335)